

북한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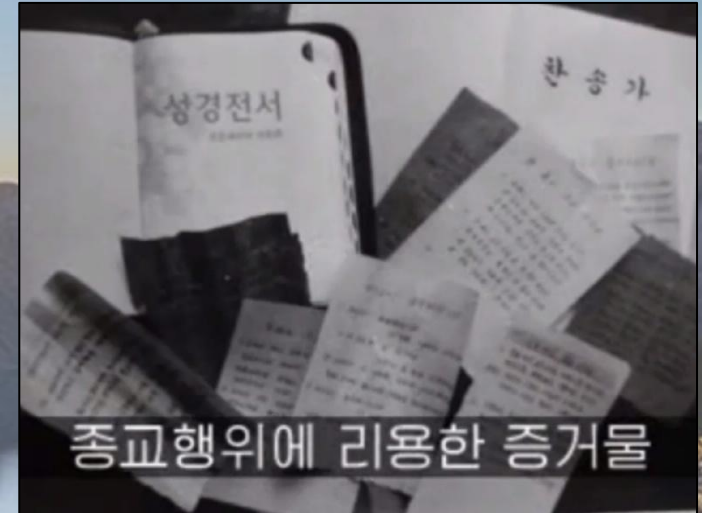
2026년 1월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특히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인해 억압이 증대되고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도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교회를 적발, 추적하는 공안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종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 및 유포를 이유로
공개재판에 세워져 12년형을 받은
북한 학생 (영상=SAND 연구소, KBS 재인용)

2.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을 비롯해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등이 여전히 억류 중입니다. 또한 강제 복송된 탈북 신자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으며, 지하교회 적발 및 실종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3.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지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핵보유국을 꿈꾸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반도가 북한이 말하는 대결의 장이 아닌 평화의 공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각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성탄절 공개한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미중, 안보 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연합뉴스TV

4.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전에 비해 안정화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물가에 주민들의 생활은 힘겹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시장의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었고 서민들의 생계에는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방의 매서운 추위가 주민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찬 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 방막 등도 비용 문제로 구비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겨울나기 사정이 전해집니다.

심해지는 빈부격차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소외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사이버 위협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은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을 비롯해 방산 기술 탈취, 각종 테러 활동,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 선교 사역자나 기관뿐 아니라 일반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직분자로 속여 신뢰를 쌓는 등 한국 교회의 문화를 잘 이해한 교묘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악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북한을 향한 선교적 관심과 참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화하고 있는 제3국 북한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등록 가정교회에 대한 대규모 처벌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로 알려져 온라인 선교 사역에 비상 경고가 울린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2024년 초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